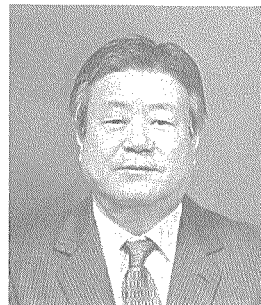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여 주신 전자공업인 및 유관기관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문민정부가 발족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커다란 변혁을 가져왔던 한해였다. 특히 경제적으로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 산업구조의 고도화, 시장경제의 강화, 정부규제 간섭의 축소, 금융의 자율화, 기업집중의 완화 등 신경제 체제 제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실시의 대표적인 개혁이 금융실명제 실시와 금리자유화였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부정한 거래를 차단하는 제도적인 장치인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사채시장이 동결되어 제도금융 이용능력이 없는 기업들이 자금을 찾지 못해 대량 부도사태를 유발하였고 국내 경기를 일시적으로 쪼그라들게 만들었으며 금리자유화 실시로 우량 중견기업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금융비용부담을 가중시켰다. 또한 소비자가가는 냉해로 주요 농작물의 흉작, 금융실명제의 실시여파로 실물소비의 증가, 실명제 실시 후속조치로 시행된 통화공급의 확대정책 등으로 물가 오름세 심리를 자극, 정부의 연말 억제 목표선인 4~5%를 넘어 지난 10월말 현재 5.4%를 기록하였다. 또한 '94년도 정부 예산편성에서도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 6.4%에서 최고 15%까지 반영해 놓고 있으며 유류소비세, 담배세, 중·고등학교 수업료 인상 등 최소 5%에서 22%까지 인상계획으로 있어 더욱 물가가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황에 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자

박계동 / 본회 비상근 부회장
동형전선(주) 사장



가가 오르면 스테그 인플레이션이 빚어져 고용과 경기는 위축되는데 자금 등 Cost 인상요인은 오히려 누적되는 악순환이 계속될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년도 전자산업은 내수시장의 경우 극히 부진하여 지난 상반기중에는 가전의 경우 2.3%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단기적으로 금융실명제 실시여파로 인한 경기부진과 용산전자상가 등의 전폐업에 따른 유통경로의 혼란 등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지난 7월 제3차 유통시장개방 확대조치로 인한 해외 대형업체의 국내진출로 내수시장 잠식 가속화가 예상되어 '94년도에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시장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엔고에 힘입어 대형업체의 주도로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고부가가치 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꾸준한 신장세를 타나내고 있어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30여년간의 경제발전이 수출주도로 이루어 졌는 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상품수출은 풍부한 노동력과 저임금, 1970년대 경공업 가공품, 1980년대 중화학제품, 1990년대에는 땅값, 금리, 임금 등

생산3요소의 고비용 구조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시키는 노력을 전개하였으며 작금과 같은 현실하에서 국제화전략의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 결국 우리기업이 살아남는 길은 국제화와 경쟁력 제고에 있다 하겠으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전제로 돌파구를 찾아서 기업 스스로의 힘으로 경쟁력을 되찾아야 하겠다. 기업이 지닌 기술·관리의 혁신 또한 경쟁력 배양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하겠다. 또한 기술과 시장개척력의 제고이다. 합작을 추진하거나 기업공동개발추진, 또는 독자적인 기술개발 등을 통해서 개척해야 하겠다. 국내에서 경쟁력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외로 생산 또는 시장개척 거점을 옮기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고객중심과 고객만족 추구 정착, 우리체질에 반영되어 있는 적당주의 의식을 떨쳐 버려야 하겠다. 또한 거래상대에 대한 충분한 정보수집과 국제인력을 양성 하여야겠다.

이제 전자공업인 모두가 오늘에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제화와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 할때 좋은 결실이 있으리라 확신한다.